의료칼럼

네팔 대지진 현장에서

정 홍 성
전남대병원 외과 전공의

네팔 카트만두행 비행기 안. 잔에 담긴 커피가 출렁이며 일부 쏟아진다. 난기류가 심해 기체가 자꾸 흔들렸다. 주위를 둘러본다. 내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모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가는 사람들. 표정은 다들 비슷하다. 근심, 걱정, 비장함.

지난 4월 25일 규모 7.8의 지진이 네팔을 흔들어 놓았다. 5월 7일 출발 직전까지 추정되는 사망자는 8000명에 이르고 있었다. 세계 최빈국 국가에서 81년만의 대지진이란다.

비행기 내부에서 초심을 다잡았다.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유년시절의 순수한 동기에서부터 현재 소속된 외과를 지원했을 때의 다짐까지 나에게는 이 출발이 나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기대와 긴장감을 갖게 했다.

카트만두에서 목적지를 향해 버스가 출발한다. 곳곳마다 무너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넓은 운동장에 수많은 텐트가 모여있는 곳도 보였다. 지진 이후 사람들이 대피해서 생활하는 곳이란다. 위험 천만한 천길 낭떠러지와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3시간 30분쯤 지났을까. 여럿의 사람들과 마을이 보인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반가움을 먼저 표현했다.

랄릿푸르 마니킬마을의 한 병원 건물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와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이곳 주민들은 많은 짐을 지고 산을 넘나들어야 하는 일 특성상 대부분 여러 부위의 관절통, 근육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지진 여파로 인해 더욱 심하게 고통스러워했다. 또한 임산부들은 지진 이후 태아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산부인과 검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의료팀은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환자들에게 주사 및 투약, 상처 처치 등을 서둘러 시행했다. 도착하고 진료를 시작한 지 두 시간 만에 100여명의 환자들이 다녀갔다.

해는 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으로 저녁식사를 마쳤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친다. 응급환자란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절뚝거리는 상태로 부축돼 왔다.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진 환자다. 우선적으로 의식상태를 확인 후 외상 상태를 체크한다. 바이탈 확인 및 신체 검진상 흉부, 복부, 골반의 치명적인 내부손상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이마에서부터 윗입술까지 안면부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찢어진 상처가 확인됐다. 윗입술 상부의 상처는 구강 점막까지 관통돼 있으며 이마의 상처는 전두근육이 찢어져 있다. 상처 세척 및 소독, 마취 후 일차봉합을 하기로 결정한다. 치과 박석인 원장님과 함께 각자의 수술 기구를 들고 상처를 꿰맸다. 어둠속에서 헤드랜턴과 주위 손전등의 도움을 받아 약 3시간에 걸쳐 환자의 응급치료가 마무리됐다. 다음날 상처 소독 및 항생제 주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초기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연성 손상은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 구호팀은 첫 이틀간의 진료를 통해 지리적 여건상 방문구호 및 진료가 필요함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방문 팀을 구성했다. 월요일 인근 마을을 직접 걸어가 도와줌을 시작으로 화요일, 수요일에는 차량을 통해 최대 1시간 거리의 마을까지 방문 구호를 진행하였다. 일부 지진 피해가 심한 마을에서는 많은 가구들이 본래의 터전을 잃고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어렵게나마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량한 위생상태로 인해 기관지 증세, 소화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여기저기의 관절통, 근육통 및 두통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진료를 위해 자리를 잡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사 및 투약을 위해 서로 몰려들었다. 진료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남은 약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내밀었다.

총 5일간 600여명의 환자들이 우리들의 손을 거쳐갔다. 물론 의학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사람 환자 맞아'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소위 말하는 '나이롱환자'도 상당히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옛다'하고 건네주는 약, 파스, 연고 하나로 지진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이것도 그들에게 제법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한다.

이곳 사람들은 참 착하고 순박했다. 5월 12일 두 번째의 강진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니 이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가 더 와닿게 되었으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곳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들이 걱정된다. 이 순수한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 질 수 있을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디 잊지 않고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기 고

5·18 기록물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임 내 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지난 13일 금남로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필자는 기록관 개관식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전문적으로 전시되고 연구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기록물을 살펴보았다.

'5·18 기록물'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정부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5·18민주화운동 자료실'을 설치하고 '5·18자료수집위원회'를 구성하여 5·18기록물과 유품 등을 수집하면서 한곳에 모이게 되었다.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를 구성해 등재를 추진하면서 당시의 개인기록물, 기자들의 취재수첩, 성명서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왔다. 그로부터 1년만인 2011년에 5·18 기록물과 80년대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전세계가 남긴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기록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로 지정한다. 유네스코는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선정 대상을 결정해왔다. 프랑스 인권선언,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양피지에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경, 여성의 투표권을 세계 최초로 쟁취한 뉴질랜드의 여성 참정권 탄원서 등 인류의 문명과 예술,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료들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판, 훈민정음 등 총 10종이 지정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 진상조사 활동과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항쟁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진 필름과 영상,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선고문, 여러 인권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기록한 인권침해 사례 등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되고, 기록주체도 관공서의 공식 문서, 언론취재물, 개인의 기록물을 아우른다.

지금까지 '5·18 기록물'은 광주시청, 5·18기념재단, 기록물이 작성된 국가기관과 도서관에 흩어져 보관돼 왔다. 이번에 개관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여러 곳에 각각 보관된 기록물들을 모아 5·18의 의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에 대해 연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유네스코는 기록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선정, 등재해 보존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선조로부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귀한 가치를 지닌 자연과 문화의 산물이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 파미르 산맥의 타지키스탄 국립공원, 나미브의 모래바다 같은 보존해야 할 자연경관과 스톤헨지와 만리장성, 알타미라 동굴 벽화, 우리나라의 경주와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 유적과 문화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현장을 '메이지시대 산업화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조선인 600여 명을 강제동원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킨 하시마 해저탄광 등 강제징용현장 7곳을 일본 산업화의 성지로 포장하고 있다.

혹자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예를 들어 일본의 강제징용현장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독일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됐다. 전쟁범죄의 참혹함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 없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용납할 수 없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우리나라를 넘어 인류 공통이 공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언으로 보존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는 보편성을 담보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 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자정을 촉구한다

송 희 성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1980년 5월 27일, 우리는 도청 마지막 새벽방송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다. 5·18은 갑자기 터진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는 속에서 '주장'과 '증언', 극히 미비한 공식 자료와 기록만으로 그 열흘간의 시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거짓과 허위가 난무했던 지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에 지난 새벽방송 논란이 더 기가 막히고 황당했다.

더구나 새벽방송 진위에 대한 명확한 해결과 정정을 요구하는 오월민주여성회의 요구에 대해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청, 오보를 게재한 언론사의 대응은 늑장 그 자체였다.

늦기는 했으나 다행히 이 논란은 해당 당사자들과 5·18기념재단의 조사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해프닝을 그저 해프닝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이 5·18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더 악용되고 더 큰 역사왜곡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5·18 내부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왜곡되어 있는 사료들을 찾고 정리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5·18에 대한 의도적 음해와 왜곡은 갈수록 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음해 세력에 대한 방조와 조장의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왜곡에 대한 대응은 항쟁 당사자인 5·18 관련 단체와 지방정부인 광주광역시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알고 싶다. 5·18에 대한 음해와 왜곡을 통해 누가, 어떤 이득을 얻는지를. 개인 또는 집단에 사실상 되돌아올 실익이 없는 속에서도 유독 5·18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사실상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우리는 5·18과 관련된 여타의 왜곡에 대해 제 민주단체와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정부 역시 수수방관하지 말고 필요한 조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5·18 광주민중항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화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졌던 배경,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불렸던 과정을 생각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의 공식 지정곡으로 삼음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처사다. 그럼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훈처와의 갈등이 수년 째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훈처가 5·18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심지어 5·18을 욕보이려 하는 의도된 행위는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

이미 5·18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와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화 하고자 하는 민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5·18 공식곡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

80년 오월, 내 아들과 딸이, 남편이, 이웃이 무참히 살육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살고자 하는 지극히 원초적인 인간의 마음, 인간이기에 행할 수밖에 없는 저항으로서 5·18에 참여했었다.

우리는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로서 5·18의 정신이 더 이상 왜곡되고 폄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5·18에 대한 부당한 왜곡에 대해, 5·18 정신 계승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처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다.

社 說

광주 '자동차 생산기지' 난항 정부가 나서야

광주시가 최대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이지만 추진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올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자칫 사업이 2017년으로 미뤄지면 정권 말 레임덕 현상 등에 묻혀 대선공약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가 자동차산업을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가 지역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인원도 전체의 21%(종사자 수 4만여명)를 점유할 정도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데 있다.

'자동차 100만 대 조성사업'은 지난해 연말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번에는 발표 시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일정 등을 이유로 올 연말이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다 해도 예산을 2017년도에나 확보할 수 있는데다 이마저도 정권 말 '생색내기식 찔끔 예산'에 그쳐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광주시가 추진했던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 공약이 이 같은 절차로 사라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성장동력산업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1조3500억 원의 생산과 4100억 원의 부가가치,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조기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다.

먼저 KDI는 광주시가 요청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발표를 오는 6월 또는 늦어도 9월로 앞당겨야 한다. 정부도 적극 나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채용 인색하다니

한국전력 등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지역 출신 채용 실적이 실망스런 수준이다. 지역인재 할당 비율이 전체 채용 인원의 10%에 그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공존공영하려는 인식이 극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의 올 광주·전남 출신 채용 인원은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채용 인원 1779명의 12.4%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13개 기관이 전체 채용 1765명 가운데 198명만을 지역 출신으로 뽑아 지역 할당비율이 11.2%에 머물렀는데, 올해도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감정원이 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 출신 채용 비율이 낮고 타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찔끔 채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누가 봐도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혁신도시의 건설 취지는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데 있다. 경제와 인구가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급속히 쇠락해 가는 비수도권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혁신도시의 '낙수효과'로 인한 경제발전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고루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에 거는 기대가 가장 크다.

물론 지역민들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전기관들도 개별 취업자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권고치인 30% 이상 지역 인재 할당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용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진 달래기

네팔 지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지만 그 피해는 추산 마저 어렵다. 사망자가 8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네팔인들은 아직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재앙이라 칭할 만한 대지진이 없었던 탓에 지진에 대한 공포가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진은 기록상으로만 따지면 고구려 유리왕 21년인 서기 2년부터 발생해 현재까지 약 25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엔 전라도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이 565건이나 나온다.

문헌상 가장 피해가 가장 컸던 지진은 서기 779년 신라 혜공왕에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이다. 삼국사기에는 '집들이 무너져 100여 명이 숨졌다'고 기록돼 있는데, 15~16세기 외국의 지진학 교재에서 언급할 정도였다.

잦은 지진 탓에 고려시대부터는 지진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괴이한 일을 풀기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 '해괴제(解怪祭)'라 불렸다. '고려사'에는 '현종 14년 5월에 금주(김해)에 지진이 있었다. 이때부터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해괴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기록돼 있다.

해괴제 전통은 조선에도 이어졌다. 이황(李滉)의 '퇴계집 고증 3권'에는 '3~4개 이상의 읍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운데 위치한 읍에 해괴제를 지낸다'는 기록이 있다. 이 해괴제는 지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발생할 때도 지냈다고 한다.

네팔 지진이 지난달 25일 발생하자 광주시와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들은 28일 광주시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의료·구조구급지원단을 결성해 파견했다. 이후 5월15일 3차 의료지원단까지 현재 네팔에서 활동 중이다.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시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를 발족했다.

조상들이 지진을 달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괴제'를 지냈듯이, 광주시 의료지원단의 활동이 네팔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채희종 사회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대표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